# 뚱보 십자가 미세 십자가

## (로마서 1:16~17(III))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소중하고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뚱보 십자가 미세 십자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 이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두 분의 여성 미술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 미대를 또 한 분은 홍대 미대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두 분은 서로 모르시지요. 두 분 모두 그 당시 십자가라는 대상에 흠뻑 빠져계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너무 상반된 모습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한 분은 크고 뚱뚱한 십자가 하나가 화폭에 꽉 차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소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된 십자가에는 수많은 눈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은 아주 작은 십자가들이 수십 수백 개 모여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개미 떼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그 너무나 작은 수십 수백의 십자가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모양을 이루어 내고 있었다는 것 밖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걸리버가 소인국에 들어갔을 때처럼 대비되는 이 두 종류의 십자가가 생각 속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뚱보 십자가는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화폭에 이미지화 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 과장 된 뚱뚱한 모습에서 작가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선언하는 담대함이 들어 있어요. 이와 연관 되어 수많은 눈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처럼 세상과 삶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수십 수백의 정말 작은 십자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작품들 속에서 이 작은 십자가들은 역사적으로 유일회적으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아닌 거지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들인 거예요. 나의하루 나의일상은 수많은 시간과 분과 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많은 시간의 단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채워져 가고 진행 되어 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늘 그 두 종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예수님

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하루, 나의 일생은 오직 십자가로만 채워져 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서는 그 두 분의 작품들이 협력해서 십자가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2) 오늘 본문을 다르게 표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뚱보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은 ‘작은 십자가에서 작은 십자가로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은 ‘오직 의인은 뚱보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는 동안 수많은 작은 십자가로 살리라’ 라고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복음과 연관 된 믿음이란 뭘 말씀하는 것이지요. 복음 사건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죽음을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처음 믿음이 있고 성화 된 나중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의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성화란 똑 같은 믿음이 반복 될 때 내 인격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더 깊은 믿음을 통해 도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 같은 조각칼로 조각을 해도 훌륭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형편없는 것이 나오기도 하는 것과 같지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또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자,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등이라고 말씀 하신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러므로 달리 말하면 늘 십자가에 가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선 네가 일등이야 라고 말하시는 곳은 언제나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 관심이 하나님의 의에 집중 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그 일 자체를 잘 해보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더 앞선 관심이다 보니 무슨 일에서든지 십자가로 갑니다. 그 곳에서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등이라고 말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제 이런 말들의 뜻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제일 먼저 원한다는 전제하에 사는 삶이라면 반드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확신이 있음을 전제 할 때 될 수 있는 말씀이란 겁니다.

솔로몬이 왕 되고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조각에 어려움을 겪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일천번제(십자가 죽음의 예표)를 드려요. 그리고 (듣는 마음 위해)기도합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포부, 어떤 정책, 소위 지도자의 요건 어느 것도 보인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것 말고는 아무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의 의는 교회에서만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영역 전체에서 찾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복음 말고는 딴 곳선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나 안 들어 하시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언제든지 그 일 자체가 잘되고 못되는 것보다는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나 아니하시나가 관심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장하나? 가 아니라 매번 하나님이 사업하는 내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시나 안 들어 하시나가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하나의 기회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 엄마다 그러면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나?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아이 기를 때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이 기르는 엄마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목적으로 해서 아이를 기를 때 그 엄마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네가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말고의 관심보다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나 안 들어 하시나에 관심을 가질 때 어디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드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데에도, 사업하는 데에도, 대통령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1등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 기를 때도 성적 오르게 할 때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가서만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고 정치 할 때도 세금을 줄여 줄 때가 아니라 십자가로 갈 때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심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오직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온 가족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들어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출근 했어요. 직장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일을 하고 사장님과 부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의인이려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직장에서도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든다는 칭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거래처 사람과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퇴근 후 회식자리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래처 마음에 들려면 사장님 마음에 들려면 아내 마음에 들려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님이 죽으신 그 뚱보 십자가, 세상의 중심인 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순간마다 내 마음이 십자가로 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라야 나는 마음 놓고 아무 신경 안 쓰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4) 십자가로 가기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 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믿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믿음,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 등 이모든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들어 있고 그렇게 함께 죽음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로 가면 매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래처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회식자리에서조차도 내가 십자가로 가버리면 그 현장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일천 번에 걸쳐 한 마리씩 드린 제사건 단 한 번에 일천 마리 드린 제사건 의미는 똑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 번제물과 내가 일체라고 믿고 드리는 제사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천 가지의 일에서 나는 죽겠다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왕상] 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일천 번의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들려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서만 판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일천 번을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는 얘깁니다.

5)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오직 십자가에 가면서 살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일천 번 죽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뚱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미세한 십자가입니다. 뚱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천 번제를 매일같이 드리는 삶, 일천 가지의 생각이 죽고 일천 가지의 내 의견이 죽고, 일천 가지의 나의 계획이 죽으면서, 일천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일천 가지의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일천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삶이 진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뚱보 십자가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미세한 십자가에서 미세한 십자가로)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뚱보 십자가를 언제 어디서든지 바라보면서) 일천 번 죽어 미세한 십자가로 나가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인 뚱보 십자가를 언제 어디서든 바라보면서 일천 번의 상황 때마다 일천 번 죽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의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